

“현대차-철도공사, 법원 판결 이행하라”

✎ 편집국 | ⓒ 승인 2010.08.30 18:27

금속-공공운수노조준비위 공동 기자회견...현대차 대표 등 146명 고발



▲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준비위 공동주최로 열린 비정규직 법원판결 관련 공동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이 현대차 하청노조와 KTX 여승무원 관련 법원판결을 이행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명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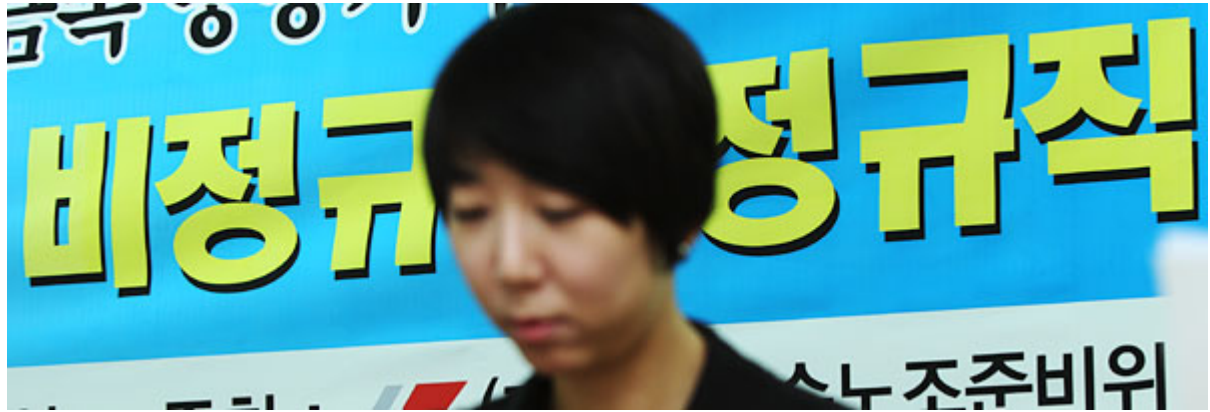
최근 법원이 KTX 여승무원과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철도공사와 현대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금속노조와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가 ‘법원 판결 이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30일 오전 10시 금속노조 2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철도공사에게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도공사와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무원들을 고용했다고 주장했던 철도유통은 사업주로서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승무원들은 채용 당시부터 철도유통(흥익회)이 아니라, 철도공사에 고용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7월 22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이 경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며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은 물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는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이 급속도로 늘어나자 불법파견업체 바지사장들을 동원, 노골적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있다.

철도공사 또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속노조와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26일 서울중앙지법은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확인소송에서 승무원들이 철도공사에 고용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허준영 사장은 판결을 거부하고 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KTX 승무원이 생각에 잠겨있다. 이명익기자

이어 이들은 “법원이 한국의 대표 사기업인 현대자동차와 대표 공기업인 철도공사에서 당연히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할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청업체로 위장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며 “모든 하청업체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2년 이상된 사내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원청이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KTX 여승무원은 자회사에 위장됐거나, 하청업체를 통해 불법파견 방식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법원이 이들이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이윤을 취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을 교묘히 회피해 온 점을 명확히 판단했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승무원의 경우 형사재판이나 가처분 신청에서 여러 차례 법원이 공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무책임하게 항소하는 등 시간끌기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30일 현대차 강호돈 대표이사과 윤여철 부회장과 공장장 등 22명과 사내하청업체 124명의 바지사장들을 근로자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오는 9월 4일 현대차 앞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근절과 KTX 여승무원들의 현장복귀, 좋은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위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